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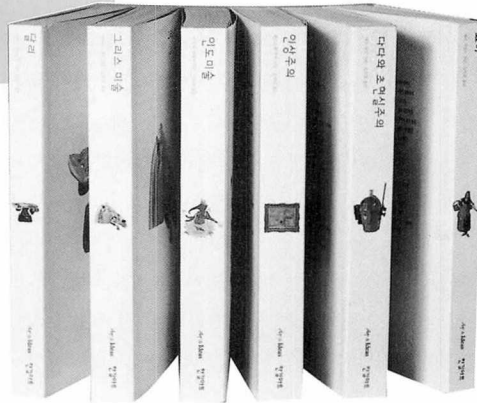
인류의 위대한 미적 유산 집대성해

〈ART & IDEAS〉 시리즈 1차분 6권 나와

한길사가 창사 25주년을 맞아 예술브랜드 한길아트에서, 인류의 위대한 미적 유산을 집대성하는 대형 기획 〈ART & IDEAS〉 시리즈를 선보였다. 미술의 전 역사를 입체적으로 탐험하는 이 시리즈는 영국의 미술전문출판사 파이돈이 기획하고, 미국·독일·프랑스·그리스·중국·일본에서 공동 출판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곧 출간된다. 한길아트는 총 140여권으로 기획되고 현재 25권이 출간된 이 시리즈를 앞으로 10년에 걸쳐 완간할 계획이며 이번에 그 신호탄으로 1차분 《그리스미술》《인도미술》《인상주의》《다다와 초현실주의》《고야》《달리》 등 6권을 번역 출간했다. 오는 2002년 11월 2차분 《이슬람미술》《아르누보》《입체주의》《개념미술》《렘브란트》《샤갈》 등 6권을 펴낼 예정이다.

이 시리즈는 세계적 권위지 《인디펜던트(Independent)》가 “전문적이면서도 고답적이지 않으며, 도판들의 화질이 〈옥스퍼드 미술사〉나 〈예술의 세계〉보다 뛰어나다”고 격찬하는 것처럼 놀라운 형식과 내용의 새로움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리즈 전체를 ‘세계의 미술’ ‘서양의 미술’ ‘위대한 예술가’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해 미

술사를 중흥으로 섭렵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사회·문화의 맥락 속에서 주제를 서술하는 ‘백과전서’ 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이즐 스피버 지음 | 양정무 옮김
한길아트/A5신/448면 내외/29,000원 내외

《그리스 미술》은 ‘신화’ ‘도시와 성지’ ‘민주제’ ‘전쟁’ 등 각 시기의 키워드 별로 미술작품을 살폈으며, 《인도미술》(비드야 데헤자, 이숙희)은 인도의 사상, 철학, 서사 등을 넘나들며 인도미술을 폭넓은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인상주의》(제임스H. 루빈, 김석희)는 작가론과 주제론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인상주의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매슈 케일, 오진경)의 경우 20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혁명적인 두 예술운동의 기원과 함께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야》(새러 시먼스, 김석희)와 《달리》(로버트 레드퍼드, 김남주)는 역사적 사실과 자전적 사실을 교차배치하면서 각 예술가의 삶과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이 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지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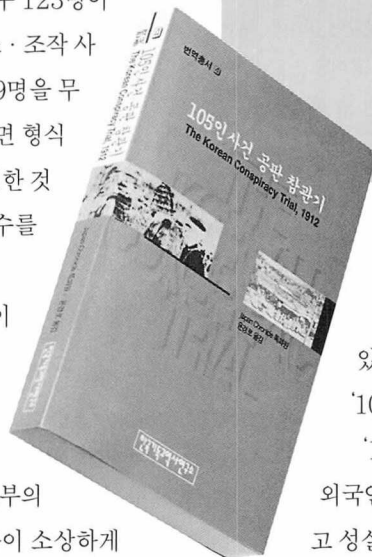
—강성민기자

‘105인사건’은 1912년에 일어난 대규모 한민족탄압사건으로 사건 당시 ‘테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으로 불렸다. 모두 123명이 기소돼 105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대미문의 날조·조작 사건이다. 일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 가운데 99명을 무죄방면하고, 주모자로 지목한 윤치호 등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풀어줬다. 이는 결국 기소 이유를 스스로 부인한 것인데, 국내 반일 민족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 책은 ‘105인사건’에 대해 《재팬 크로니클》이 발행한 공판기록 및 참관기인 《The KOREAN CONSPIRACY TRIAL》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12년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회에 걸친 공판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재판부의 신문내용과 피의자들의 진술, 변호인단의 변론 등이 소상하게 정리돼 있다. 과거 105인사건 연구자료는 일제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검사측 논고와 판결문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발굴된 경찰과 검찰의 신문조서와 공판기록 일부가 국역작업을 거쳐 자료로 활용된 정도다. 이 책은 재판부와 피의자, 변호인단의 공방을 확인할 수

‘105인사건’ 진상 밝히는 완벽한 자료

《105인사건 공판 참관기》 출간돼



《재팬 크로니클》 특파원 지음 | 윤경로 옮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A5신/544면/22,000원

있는 1심 재판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사료가치가 높고 ‘105인사건’이 일제 조작과 날조임을 증언한다.

‘105인사건’ 연구에 매달려온 옮긴이는 ‘제1회 공판 : 외국인에 대한 우회적 비난’부터 ‘판결 및 선고’까지 세심하고 성실한 번역으로 당시의 정황을 되살리고 있다. 부록으로 〈105인사건 판결문〉과 원문자료를 실어 성실한 번역에 정확함을 보였다. —차정신기자